

# 전남도, 올해 온실가스 151만톤 감축한다

## 총 96개 사업 6154억원 투입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육성 "탄소중립 실천·COP33 유치"

전남도가 올해 6000억원을 투입해 온실가스 151만톤 감축에 나선다. 전남도는 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점검, 2023년 감축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도는 2023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

정에너지 29개, 청정산업 16개, 청정생활 29개, 청정산림 22개 등 올해 총 96개 감축 사업에 6154억원을 들여 온실가스 151만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온실가스 감축사업 관련 실국장, 광주 전남연구원, 환경산업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등 전문가가 참석했다. 2023년 핵심 전략별 감축 목표는 △청정에너지는 태양광·풍력, 도민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사업, 해양 분야 해수열히트펌프

보급 등 29개 사업에 83만톤 감축 △청정산업은 탄소중립재자원화 실증지원센터,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센터, 중소기업 탄소배출데이터베이스 구축,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등 16개 사업 추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반 구축 등이다. 또 △청정생활은 탄소중립 실천가 양성, 탄소포인트, 천연가스·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폐비닐 수거 대화용기 재사용촉진 등 29개 사업에 39만톤 감축 △청정산림은 배출권거래제 산림 상쇄, 산

림 경영단지 조성, 공익숲 가꾸기, 자연휴양림 조성, 생활 밀착형 정원 조성 등 22개 사업 29만톤의 온실가스 흡수도 포함됐다. 보고회에서 문금주 부지사는 "탄소중립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로,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전남도가 탄소중립을 선도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도민에게 "탄소중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1년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한 후 2050년까지 매년 핵심 전략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감축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21년 122만톤, 2022년 150만톤 등 총 272만톤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 정영균 도의원 "간척지 다시 갯벌로 복원해야"

식량 확보를 위해 매웠던 간척지를 다시 갯벌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순천1·사진)이 제368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1960년대부터 매립했던 간척지를 다시 갯벌로 복원하는 역간척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는 최소 17조8121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며 "2021년 신안 갯벌과 보성·순천

갯벌을 포함한 총 4곳이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며 갯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우리나라 갯벌은 1300만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연간 26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탄소 흡수원으로 그 효용성이 증명되었다"며 "전남도 차원에서 탄소중립에 발맞춰 갯벌 식생·복원 사업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 신학기 상설 교복 나눔장터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와 학생들이 8일 광주 북구 새마을부녀회 사무실에서 열린 상설교복나눔장터에서 교복을 고르고 있다. 연중 운영되는 나눔장터는 자켓(5000원), 바지·셔츠·조끼(3000원) 등을 판매하고 있다. 수익금은 (재)광주북구장학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김양배 기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와 학생들이 8일 광주 북구 새마을부녀회 사무실에서 열린 상설교복나눔장터에서 교복을 고르고 있다. 연중 운영되는 나눔장터는 자켓(5000원), 바지·셔츠·조끼(3000원) 등을 판매하고 있다. 수익금은 (재)광주북구장학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김양배 기자

## 광주역 도시재생 주민제안 1차 공모 참여자 모집

광주시가 광주역 일대 지역공동체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3년 광주역 도시재생 주민제안 1차 공모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2020년부터 5회 추진돼 총 21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번 공모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공간조성 프로그램 등으로 사업당 5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광주역 사업권역 내 거주

자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이나 청년모임, 광주시에 소재한 단체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광주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14일과 21일 오후 2시 광주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어 주민공모사업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된 사업은 서류 심사와 선정심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타당성, 실현 가능성, 효과 등을 심사해 4월 중 최종 선정된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선거 선거정보 및 QnA**

**Q.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그 URL 주소를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나요?**

**A. 전송할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만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주체 : 후보자  
※ 선관위에 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사람  
▶기간 : 선거운동기간(2023. 2. 23. ~ 3. 7.)  
▶방법  
-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하는 방법  
-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전송하는 방법

▶ 전남선관위에서 12회에 걸쳐 제공하는 기획연재 보도입니다.

신청 서류와 사업 공모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광주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블로그, 광주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지 기자

## 광주시, 구직청년 250만원 지원

광주시가 구직청년 1400명에게 매월 50만원씩 250만원을 지원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을 두차례 걸쳐 모집한다. 올해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은 지난해 1200명보다 16.7% 늘어난 총 1400명으로 1기는 800명을 선정,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모집한다. 2기는 600명으로 6월 중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19~39세의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이면 가능하다. 단 학생·휴학생·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광주청년드림수당 공식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지원 신청자의 가구 소득, 미취업기간, 구직활동계획서를 심사해 최종 선발한다. 박상지 기자

## 전남도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 본격화

### 13개 시·군 26개 마을 선정 경관 조성·재능기부 등 참여

전남도가 귀농어귀촌 마을의 따뜻한 공동체 문화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에 13개 시·군 26개 마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어울림마을 선정에 따라 귀농어귀촌인과 지역 주민이 안정적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도록 마을 경관 조성, 재능기부, 마을행사 등 공동 참

여형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선정 마을에는 지역 특색에 맞는 작물을 선택해 경관 조성을 위한 나무, 꽃 구입비와 재능기부를 통한 벽화 그리기, 서예 활동, 악기 배우기, 풍물놀이 등 주민 융화 프로그램 진행 비용 1500만원을 지원한다. 모든 작업은 멘토·멘티를 결성해 귀농어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져 진행한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마을 특색을 살린 귀농어귀촌인과 지역 주민

간 융합을 통해 마을 공동체 문화가 확산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순차적으로 더 많은 마을이 귀농어귀촌 어울림 마을에 참여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귀농어귀촌 인구는 2021년 기준 4만65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 발표 이래 역대 최대로 전남도가 '귀농어귀촌 1번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황지 기자

## 전남도 '천일염 수출 활성화' 지원... 1억8000만원 투입

전남도가 우수한 품질의 전남 천일염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올해 2개 사업에 1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올해 '천일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과 '천일염 수출용 제품개발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영세한 천일염 수출업체의 상품 개발과 마케팅 분야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판로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2개 사업을 선정해 기업당 3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은 용기·포장 등 개발·품질 인증, 안전성 검사 비용 등 수출 상품 개발과 박람회 참가, 바이어 초청 비

용 등 해외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지원을 바라는 기업은 오는 16일까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광주전남 지역본부에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2~3월 중 모집공고를 통해 2개 사업을 선정하고 각 6000만원을 지원해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최황지 기자

## 광주시, 중소기업 수출진흥자금 30억 용자 지원

광주시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판로 개척 등 수출 관련 사업에 필요한 30억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을 용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용자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에 본사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체로,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2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참가 등 수출 관련 사업 참여 업체다. 2021년도, 2022년도에 지원받은 업체는 제한된다. 용자 대상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 관련 사업이다. 자금은 업체당 3억원을 지원하

며, 2년 거치 일시상환(변동금리) 조건이다. 수출진흥자금 용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용자를 받을 때 2.12%의 변동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한 기업은 1.62%가 적용된다.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22일부터 3월17일까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금용자관리 시스템에서 비대면 접수한다. 박상지 기자